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오월어머니들, 오늘은 함께 영화보러 갈까요?”
“영화제목이 뭐다?”
“1980 사북이랍니다.”
“사북?”

아무도 사북을 몰랐다. 그렇게 광주독립영화관으로 향했다.

‘1980 사북’은 다큐멘터리영화다. 멀리 저 아래 기차가 달리며 터널로 사라지는 자연풍광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썰민 첩첩산중 강원도 정선의 산천이 웅장하게 펼쳐지며 오지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대통령이 오신 우리마을’이라고 새겨진 고인돌같은 큰 바윗돌이 마을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영화의 시작이다.

사북은 카지노와 강원랜드가 떠오르지만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족을 데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북 탄광으로 광부들이 이주했다. 마치 축사같은 여건의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며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가족을

함께보는 영화, 1980 사북

위해 위험한 탄광에 들어갔던 광부들. 임금 착취는 물론이고 1년에 200여 명이 일터에서 죽어도 산재보상도 받지 못한 광부들이 어용노조와 동원탄좌에 저항하며 일어난 노동쟁의에 전두환과 군부가 개입했다.

1980년 봄이다. 통제받던 언론은 광부들의 진실은 가리고 폭도의 프레임을 씌워 진실은 덮고 자극적인 사진의 신문은 전국에 배포된다. 전두환 쿠데타 시절이다. 인간의 시간이 아닌 집승의 시간이 사북 광부공동체를 덮친다. 광부들과 그 아내를 끌고 가서 고문하며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동료들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또 그 이름을 찾아 붙잡아 고문하며 다른 동료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연쇄적으로 이웃을 서로 죽이고 싶은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잔인한 과정, 45년이 되도록 대를 이어 화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 간 영화다.

영화를 보는 내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든다. 누가 원수인가? 인간이 저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할 수 있는가? 국가폭력에 의해 서로를 향한 원망과 저주를 품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국가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삶을 회복하는데 이 영화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파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연구자처럼 접근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신뢰감을 준다. 두 시간 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든 밀도 높은 예술성도 놀라웠다.

아무도 몰랐던 사북 광부촌에서 일어난 공동체의 아픈 이야기에 영화를 보면서 장소는 사북이지만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광주의 봄이 겹쳤다. 그 두 사건 뒤에 전두환의 욕망이 이끌거리고 있었다. 광주는 1980년 5월 그 이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광주를 방문하며 세워놓은 대통령 비석을 깨서 망월동 묘역 입구 바닥에 깔고 밟고 다닌다. 그러나 사북은 아직도 ‘대통령이 오신 우리마을’이라고 자랑스럽게 비석이 세워져 있다. 과거사의 진실에 다가가고 서로 치유하는 길의 물꼬를 튼 ‘1980 사북’ 영화를 함께 보며 우리가 국가폭력의 과거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했다. 이 영화에 용기있게 참여하고 영화로 제작해 주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심으로 사죄할 일이 있다면, 사과해야만 그 다음 세상이 환하게 열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두환은 끝까지 사죄하지 않고 죽어버린 가장 불쌍한 영혼이다.

‘사북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1980 사북 영화 마지막 장면에 떠 있는 한 줄의 문구다. 국가가 답할 차례다.

문화난장



강은경
前 함평순불중학교 교장

학교 재직 때다. 교육신문에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사진과 글이 눈에 쏙 들어왔다. 교사 퇴임 후 문화해설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였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알리고 젊은 세대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기억을 전하고 있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활동이 무척이나 보람된다는 내용이였다. 나도 퇴직하면 문화해설사를 해보고 싶어졌다.

자신으로부터 ‘무등산무돌길문화대학 안내해설사 자격과정’ 소식을 들었다. ‘무등산무돌길협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과정을 알아봤다. 그러나 곧바로 신청하지 못하다가 퇴직을 6개월 앞두고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올해 전반기에 일반과정을 수료한 뒤 후반기에 심화과정을 수료했다. 18기 입학식에서 수강생 대표로 선서를, ‘제10주년 무돌길협의회 창사 기념식’에선 수강생 대표로 축사를 했다. 뒤에 어무돌길협의회 임원까지 맡게 됐다.

무돌길은 1992년 4월 무등산 자락 순환길 118.7km를 차량 답사로 시작, 김인주 의장과 박

무돌길, ‘민주화 운동의 성지순례길’이 되려면

승필 교수 주도로 2009년 4월 무등산 자락 한 바퀴 51.8km로 개척하게 된 길이다. 2010년 10월 무돌길 개통식이 있었다. 이어 2015년 9월 무돌길문화대학 안내해설사 양성과정이 개설됐다. 올해 18기에 이르렀다. 무돌길은 무등산 최초 이름인 ‘무돌뫼’에서 따왔다. 싸리길인 제1길부터 천지인길인 제17길까지, 총 17개의 길이 있다. 광주 북구구간, 광주 동구구간, 담양구간, 화순구간 총 60km에 이른다. 무돌길은 ‘500년 이상 무등산 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과 마을로 잇는 마실길’로 ‘다리와 재를 넘어 마을 사람들끼리 소통했던 길’이다.

매주 토요일 ‘무돌길문화대학’ 노영희 학장이 준비해 온 따뜻한 차와 커피를 마시고 출발지로 향한다. 이명학 교학처장의 사회로 그날의 일정을 체크한 뒤 걷기가 시작된다. 영산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의 경계선이고 호남정맥의 능선이 있는 백담정재길을 안고 있는 무돌길을 걷는다. ‘사람문화의 선비정신, 의병들의 기개,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곤 한다. 또한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마을 길과 재를 넘으며, 이 길의 개척자 정신도 마음에 새겨본다.

무돌길 마스코트인 정자에 이르면 ‘무등산의 개요와 이해, 독도법, 응급처치 구급법, 무돌길 주변 경승지, 무돌길 운동 방향’ 등에 관한 이론 수업을 듣는다. 이후 각자 쟁거는 도시락을 꺼내어 먹는데 학창 시절의 소풍처럼 즐거운 시간이다. 도란도란 정겨운 얘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행복의 기원’의 서은국 교수는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

과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김인주의장은 무등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홍빈 대장, 한강 작가, 김대중 대통령’을 꼽는다. 실은 광주·전남인 모두가 무등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정신이 훌륭한 인물을 배출해 낸 것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현재, 무돌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후손들의 이야기에 멋지게 등장할 것 같다.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를 민주화로 이끈 무등산, 그 산의 둘레길인 무돌길이 이제 는 지역을 넘어서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순례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주, 담양, 화순을 연계하는 시내·군내버스 운행이다. 둘째, 노면정비의 필요성이다. 풀이 무성한 코스에선 위험한 도로를 걸어야 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정비해 주면 좋겠다. 셋째,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마련이다. 넷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편의 시설과 안내 체계 등이다.

‘무등산무돌길협의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돌길 걷기를 도모하고 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무돌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 같다. 그렇게 되면 무돌길이 더욱 의미있고 빛나지 않을까. 2025년 6월 제5회 전국무등산무돌길완주대회’를 기대하며 외쳐본다. 무돌! 무돌!

햇플 성수동, ‘성공의 주연’은 시민이었다

도시의 가능성이 깨어났다. 행정은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뒷받침했다. 이 삼박자가 도시 재생의 핵심 엔진이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를 ‘사람 중심 도시 전략’으로 설명한다. 도시는 시민의 삶이 만드는 무대다. 행정은 그 무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여야 한다.

A 교수는 성수동을 경험경제의 모델로 바라본다. 공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경험의 구조를 디자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장소의 매력인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기업을 부른다. 행정의 역할도 분명해졌다. 주민과 청년, 창작자의 자생적 움직임을 존중하고 경청했으며, 도시개발과 재생의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 지역 정체성과 실험,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통합적 디자인 전략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오전 SNS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남는다. 답은 분명하다. 답습으로는 불가능하다. 개발을 명분으로 주민을 밀어내고 동네의 기억을 지우며, 행정이 무대 중앙에 서는 순간, 그 도시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행정전문가 윤운, 공무원의 고유권한 등을 앞세우며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목포 지역의 일부 행정가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 아닌가 싶다. 성수동의 교훈은 단 하나다. 주연을 시민에게 돌려줄 때, 도시가 살아난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광주·전남 공동 이익 실현 메가시티 로드맵 제시 환영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포인트 심사를 열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달 초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운영 예산도 삭감해 내년 초 예정했던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냐는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메가시티 로드맵’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행정통합의 절차와 구조를 규정한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 제정안에 의거해 2026년 제도 기반 완성, 2026년 초광역 산업투자청 설립, 2028년 총선 직전 특별지자체 공식 출범 등의 세부 일정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극3축’ 전략의 핵심 권역이다. 첫 성공 사례는 반드시 호남이 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의 설명대로 AI(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RE100(신재생에너지) 거점 전남, 여기에 초광역 산업투자청이 결합한다면 전체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안팎의 기대와 다르게 광주·전남 특별연합이 의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제 본분에 소홀하다는 비난은 물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단체장이야 당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이 적극적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서 최우선 추진에 힘이 실리는 것과도 대조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을 실질적인 대안이자,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강력한 기반이다. 선택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 필수다. 주민 여론 역시 긍정적이다. 이번엔 제시된 로드맵에 맞춰 차근차근 진척돼야 한다. 광주의 경우 시의회에서 규약을 의결했고, 운영 분담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행정 절차를 성실이 이행했다. 전남도와 도의회가 현명하게 결단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화급같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선 안 된다.

초광역 메가시티 탄생을 위한 여건은 이미 성숙해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다른 주요 국가 정책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5극3축 체계 안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하지 않겠나.

위험 더 커진 고병원성 AI 방역 관리에 더 집중해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충남 천안시와 경기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12월에 만 4건이며, 최근 이틀간 3개 시·도에 걸쳐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우려가 높다. 육용오리에서는 영암이 첫 번째였다.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즉시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88호에 대해서 정밀 검사하고,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소독을 강화했다.

전국에서 25/26년 동절기 10건으로 나타났다. 경기 6, 충북 1, 충남 1, 전남 1, 광주 1건으로 집계됐다. 비상이다. 야생조류에서도 바이러스가 속속 검출되고 있다. 경각심을 갖고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시기다. 전남도와 중수본은 해당 영암 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계약사육 148호와 전남 내 전체 오리 농장 224호에 대해 일제 검사에 들어갔다. 또 전

담관을 1대1로 지정·배치해 전파 매개체인 알, 사료, 분노 운반차량의 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중수본은 일선 농장을 대상으로 상황 공유 및 방역 수칙 준수를 홍보하는 한편, 지방정부도 관내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미흡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수 농가에서 발생한 경기도 뿐 아니라 전남의 경우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인접한 곳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검사 주기 단축 등 필수적인 매뉴얼이 누락되지 않고 이행되도록 한 차라노 빈틈이 없어야 한다. 농장에서도 가금의 이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주요 증상은 물론 경미한 부분이 확인돼도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이다. 올 겨울에는 그 위험이 더 커졌다. 방역에 더 철저해야 할 것이다. 예방 활동에 엄격히 임해야 한다.

다카시 광장

어미의 마음

주영길

아비는 오늘도 마당밭

만삭의 몸 풀 지하방 있어
다둥이어도 좋아

튼튼이란 자라다오

이맘이 어머니 마음



※시작 노트
빛고을 건강타운길 계단 내려와 마을로가는
뒷밭 입구, 농부가 만들어 놓 구렁이 앞에서
만삭의 팽이가.
되돌아 본다. 옛날 어마의 마음이 소환된다.
가난한 집의 육남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성수동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햇플 1번지’가 됐는가. 겉으로 보이는 멋진 브랜드 습과 감각적인 카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철저한 조연이었다. 도시를 바꾼 건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도시 발전은 늘 ‘행정의 성과’로 포장돼왔다. 예산, 계획, 건축물 이 세 가지가 도시를 성장시킨다고 믿어왔다.

성수동은 이 공식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행정이 앞장서기보다 뒤로 물러서자, 잡자던